



3면

IAEA "H2O 연료수 방류 계획, 안전 기준 부합"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차 천변 2길 6번지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음 5월 18일) 제32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교육, 힘차게 나아가자”

서거석 교육감 취임 1년

▶▶ 관련기사 4면 · 16면

- 기초학력 책임제
-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 10대 핵심과제 중심
- 지난 1년 성과 소개
- 전북에듀페이 등
- 하반기 정책도 발표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 오직 학생과 전북교육만 생각하며 흔들림없이 나가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달라며 제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은 “도민 여러분께서 전북교육은 지난 1년 무엇을 했고, 대전환은 어디까지 왔는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면서 “이 질문에 부끄럼 없이 답하기 위해 저 자신을 체찍질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책임제와 미래교육 환경 구축 등 신년 기자회견 때 제시한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기초학력 책임제를 언급하며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



서거석 교육감은 4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검사를 했다”면서 “이로써 시·군간의 격차 및 과목별 편차 등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1교시 2교사제, 두드림학교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이 튼튼해져 유익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돕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업 시간에 기초학력 협력교사가 추가로 투입되는 1교시 2교사제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교육감은 “하반기 두

번의 향상도 검사를 실시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의 효과성을 분석해 약속대로 기초학력만족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 100% 제공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생용 스마트기기와 스마트칠판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지난 4월에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파 등 갖출 미래교육캠퍼스가 2026년 문을 열 예정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미래교육은 다소 늦었지만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면서 “AI와 가장 친숙하고, 세를 가장 잘 다루는 학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의 대표적인 성과중 하나로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들 수 있다.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전북교육 인권조례가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것.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학생의회 출범으로 학생들 목소리도 커졌다. 학생의원들은 제회 정기회에서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 평가 응시권 보장 등 모두 5건을 의결했다.

학생 해외연수는 올해 2,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유학 규모가 작년보다 3배로 확대되는 등 작은학교 살리기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전북교육청은 열심히 일하는 교사를 우대할 목적으로 농어촌학교 승진가산점 상한점 축소, 대규모 학교 승진가산점 확대 등 교원 인사제도도 대대적으로 손을 봤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전북에듀페이를 지급할 계획이다. 입학지원금,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초1, 중3, 고2·3 학년이, 내년은 초 2~6, 중 1~2, 고 1 학년이 지급 대상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월 10만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된다.

모든 학생에게 에듀페이를 지급하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재,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세계시민, 실력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로 길러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다”고 거듭 밝혔다. /정은성 기자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날개’

전북대, 3년째로 선정 3년동안 200여억원 지원 국가전략기술 견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브릿지 3.0·BRIDGE)’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의 우수 자산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지원해 대학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제1기 사업이 시행됐다.

지난 1기(BRIDGE), 제2기(BRIDGE+)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기반으로 이번 제3기(BRIDGE.3.0) 사업에 선정된 전북대는 비수도권 국립대 중 유일하게 ‘기술거점형’에 선정돼 2025년까지 3년 간 20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에 전북대는 이번 BRIDGE 3.0 선정으로 ‘국가전략기술분야 핵심 산업 발전 선도 및 동반 성장 견인’을 비전으로 △보유 우수기술의 기술사업화 추진 △BRIDGE 3.0 기반 산학협력생태계 조성 △CBO 중심의 기술사업화 추진 △후속지원을 통한 재투자 환경 조성 등의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중 전북대의 강점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첨단모빌리티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자산 고도화, 실용화 개발,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 지역의 기술사업화 허브를 넘어 국가전략기술의 국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전북권에 우수기업을 유치할 통한 지역 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순정민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플래그십 대학으로의 더 큰 걸음을 뗄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실적 8억6000만불’

〈신고금액〉

산업부 2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 동향 결과... 비수도권 2위 실적

새만금 산단 입지 우수성 등 전북투자환경 매력 외국인기업 선호

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기업 2개사의 업종은 도소매 유통이 11개, 화공이 3개, 금속기공이 2개, 전기전자, 제조, 환경, 음식점 연구, 식품이 각 1개기업씩이다.

국가별 투자 실적으로는 중국이 8개, 미국·홍콩·영국·베트남이 각 2개씩, 그 외 몽골·스웨덴·요르단·키르기스스탄·키프러스·태국이 각 1개 기업씩이다. 전북 지역별로는 군산

이 11개, 전주 4개, 익산 2개, 정읍 2개, 남원·김제·부인이 각 1개씩이다.

또 산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신고금액 기준 지난 1962년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전북도 누적 실적은 79억 9,000만불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2021년 1억1,500만불 10위, 2022년 19억6,200만불 2위, 2023년

상반기 8억6,100만불 2위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고금리, 라우 전의 장기화, 미·중 패권 분쟁과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보호 정책이 추진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서도 새만금 산단의 입지 우수성과 한국의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 우수한 인력과 기술 등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